

## 수도권 초등교사 양성의 메카, 경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이하 '경인교대')는 '큰 힘' (심오한 진리 탐구), '큰 사랑' (교직자로서의 품성 도야), '큰 빛' (민주적 지도성 함양)의 세 가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지구촌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능, 가치를 학습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표로서의 지도적 인격을 갖춘 유능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 초등학교 교사 양성의 메카인 경인교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2006년 교육대학교·대학원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음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교육대학교로 인정받았다. 지난 2000년 첫 번째 평가 이후 2회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경인교대의 발전상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살펴본다.



▲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전경

### ⇒ 수도권 초등학교 교사 양성의 '메카'

1946년 경기도립 개성사범학교로 출발한 경인교대는, 2005년에 추가로 경기캠퍼스가 본격적으로 개교되면서 수도권 초등학교 교사 양성의 요람이자, 대한민국 교사 양성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인구증가도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교육대학이 없어, 경기도에도 교육대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약 700여 만 명 도민들의 탄원에 힘입어 경기도 안양에 제2캠퍼스인 경기캠퍼스를 신축하였다. 경기캠퍼스에서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하면서, 경인교대는 소규모 교육대학교에서 학부 신입학생이 1,013명, 대학원 입학정원이 305명인 중대규모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경기·인천캠퍼스를 둔 경기·인천 지역의 유일한 국립 교육대학교로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경인교대 허숙 총장은 "경기캠퍼스의 개교와 함께 발생한 인적·물적 자원의 배치, 운영의 효율화 문제 등 난제 해결을 위해 총장 직속으로 대학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양 캠퍼스 균형발전 소위원회와 대학체제발전 소위원회, 대학이미지개선 소위원회, 대학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양 캠퍼스 균형 발전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서 경기·인천 양 캠퍼스 체제의 안정화에 주력해 나갈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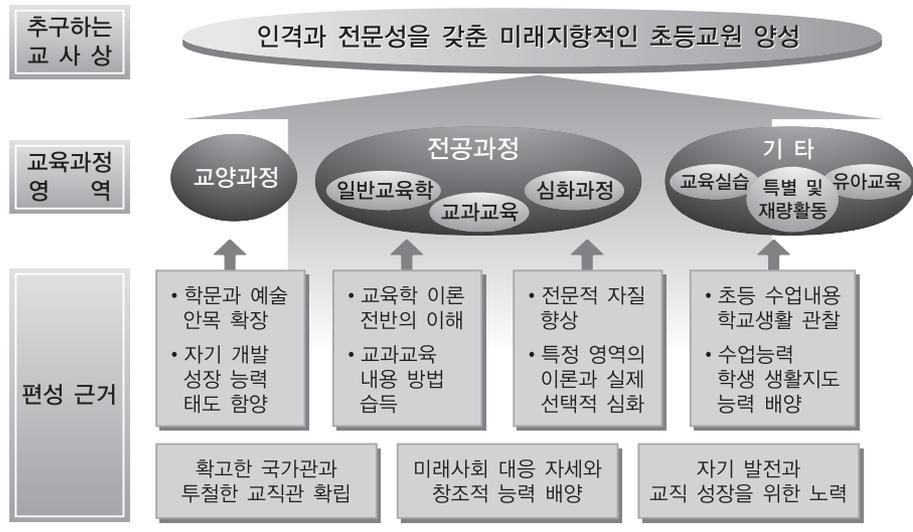


허 숙(경인교육대학교 총장)

### ⇒ 끊임없는 교육과정의 개선과 교과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경인교대가 국내 최우수 대학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 의지는 경인교대의 자랑이다. 경인교대는 인격과 전문성을 갖춘 초등교원 양성이라는 특수목적대학으로서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영역을 교양과정, 전공과정, 심화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개설하고 있다.





[경인교대 교육과정]

경인교대 교육과정은 교사의 인성 요소 강화, 학교현장과 지식기반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선택 과목 증가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 및 엄정한 학사 관리 체제 확립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교사로서의 인성 함양과 자율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감독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보강 이행과 매 학기 마지막 주를 휴업일에 대한 보강주로 운영하는 등 엄정한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실습 제도 강화를 통해 예비교사의 수업 및 학급 경영 능력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습 지도교수의 현장학교 방문이 전국 교대 중 가장 많기로도 유명하지만,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사전교육을 실시, 실습생 전원에 대한 일대일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경인교대가 실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학사정보시스템(ERP)을 통한 실습관련 교무행정 시스템 구축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방법 활용을 통해 수업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있다. 강의 유형을 이론중심, 이론과 실기 병행, 실기중심, 토론 및 세미나, 팀티칭중심, 사이버중심 수업 등 6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을 뿐만 아니라 유형별 강의 평가제를 도입해 지속적



[경인교대 교육실습과정]

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있다. Blended e-Learning을 통해 첨단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기를 강조하는 수업 확대를 통해 수업 운영의 충실성 증대도 도모하고 있다.

경인교대는 학생들이 교사로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의 공식적인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교과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 해결과 정보 제공을 위해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nglish Cafe를 운영하고, 학생 해외 문화탐방 및 연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교사로서의 전문성뿐 아니라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경인교대는 한 명의 면담 지도교수에 전 학년(1, 2, 3, 4학년)의 학생들을 골고루 배치함으로써 교수와 학생 사이의 상담뿐만 아니라 선후배 사이에도 필요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면담팀에 따라 온라인상의 커뮤니티가 운영되기도 하여 정규 교육 과정 못지않은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다.

### ➡ 교수의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대학에서의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경인교대는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신입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부터 나타난다. 우수교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기 위해 채용 절차와 기준을 공개함은 물론, 다단계로 진행되는 선발의 각 전형과정에서 독립성이 확보됨으로써 두 개 이상의 평가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학과 면접시 총장이 지명하는 외부인사를 2인 이상 포함시키고, 학과 면접 외에 본부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임용 심사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

교육중심대학으로서 교수의 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강의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 교수들은 강의평가 결과를 다음 학기 강의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수업 개선을 도모한다. 강의평가 결과는 전임교수의 승진 및 재계약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활용되고, 시간강사의 평가 결과는 본인과 학과장에게 동시 통보함으로써 다음 학기 강사 선정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강의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시에도 반영되며, 강의우수자에게는 연구비 우선 지급과 포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의 지원 아래 경기캠퍼스에 첨단관리시스템을 도입한 U-Campus 방안은 학사 관리, 교육기자재 관리, 강의실 관리, 교수학습 자료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뿐 아니라 각종 교육매체 제작 지원도 용이하게 하여 교수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인교대는 교수들의 연구지원을 위해서도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 학회 발표 및 참여경비를 지원하고, 해외 파견교수의 비율을 전체 교수의 15%까지 확대하고,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교수의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수의 연구 촉진 및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허숙 총장 취임 이후 대학원 수업 시수를 학부 수업 시수와 합쳐서 전체 교수의 담당 수업 시수를 경감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교수들의 연구년 재사용을 위한 최소 기간을 기

존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여 연구기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도록 하고, 신입 우수교수 외국과건 제도를 신설하여 신입교수들의 연구역량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라 하더라도 교육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마다 업적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교수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허숙 총장은 “학내 연구풍토를 진작하고 교수 연구활동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을 마련하며, 수업 부담의 경감과 인력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등을 통해 교수들의 교육활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대학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교수들이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과 연구에 정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교수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 ➔ 3년 연속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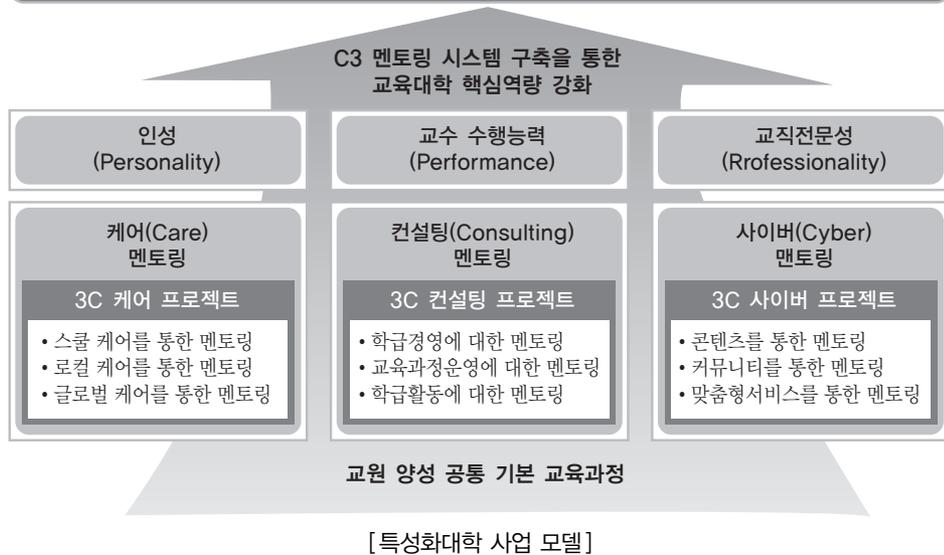
경인교대는 2004년부터 3년 연속으로 수도권 대학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2007년 현재, ‘C3 멘토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로컬(global: global+local) 교육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3란, 케어(Care) 멘토링, 컨설팅(Consulting) 멘토링, 사이버(Cyber) 멘토링을 일컫는 것으로 교육 케어·컨설팅·사이버 멘토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세계화 마인드를 갖추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글로컬(global) 교육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사교육의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 소외계층 및 해외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 멘토링은 예비교사들의 인성 함양 및 학생지도 능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경인교대 기획연구처 조동섭 처장은 “멘토링 활동을 통해 교대학생들의 봉사정신과 교직의 사명감을 높이는 등 교직인성을 갖추어 가고 있고, 대학에서 학습한 교육 철학과 이론을 현장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현장 적응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들은 차후 교단에서 접하게 될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재외 국민 자녀 대상 멘토링을 통한 해외 봉사 경험은 국제 이해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케어 멘토링은 스쿨 멘토링, 로컬 멘토링, 글로벌 멘토링의 3개 영역으로 진행된다. 특히 글로벌 멘토링은 해외교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교육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멘토링은 현재 중국,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의 한국 국제학교와 한글학교에서 10일 가량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예비교사들은 한국의 문화유산, 위대한 한국인, 우리나라의 상징 만들기, 한민족의 역사와 통일 등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진행한다. 각 주제별 지도안과 교육자료들은 사전에 치밀한 사전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교육활동은 귀국 후에도 e-mail이나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한 1:1 상담 등으로 꾸준하게 이어진다.

교직전문성 · 인성 · 세계화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리더 육성



이밖에 스쿨 멘토링은 인천 서흥초등학교, 경기 삼성초등학교 등 경기도내 초등학교에서 예비교사 40여 명이 방과 후 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로컬 멘토링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활동 중이다. 인천과 안양의 공부방 교사로 멘토 활동을 수행중인 예비교사들은 매주 1~2회 자신이 맡은 공부방을 꾸준히 방문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컨설팅 멘토링은 학교경영, 교육과정 운영, 학급활동 영역에 대한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는 교대교수 뿐 아니라 교육대학원생과 일반교사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업이자 이슈인 교육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됨으로써 전문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버 멘토링은 콘텐츠 개발, 커뮤니티 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의 세 영역에 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이버 멘토링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초등교육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높일 수 있으며 아울러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현직교육과 평생교육의 장**

사회 변화의 가속화, 평균수명의 연장, 과학지식 및 기술 체제의 진보, 여가시간의 증가 등은 우리 사회를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학령기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직사회의 변화도 독려하고 있다. 교사들도 평생 학습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게 되었다.

경인교대는 교사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경인교대 초등교육연수원에서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과별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해마다 1,500명에 이르는 연수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경기캠퍼스에서 경기 지역 초등교사,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1급 정교사 연수 및 교과별 직무연수(체육과)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 예체능 과목 및 컴퓨터교육, 과학 교육 직무연수로 확대 예정이다. 그리고 교감, 교장 직무연수 뿐 아니라 상담 직무연수 등도 계획하고 있어 교사들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인교대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원 현직교육의 측면에서 교육 연구와 교육 실천의 조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창의적·반성적 초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교원을 위한 계속교육에 초점을 맞춰 초등교원들이 교육대학원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인성, 교육적 사명감 및 교직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되고, 교육 현상에 대한 반성적 사고 능력과 비판 정신도 함양할 수 있고, 전공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심화된 전문 지식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능력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준 높은 논문 산출이라는 대학원의 역할 차원에서 논문 지도교수를 조기에 정하고, 지도교수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며, 논문 관련 강좌를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위 논문이 연구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에 적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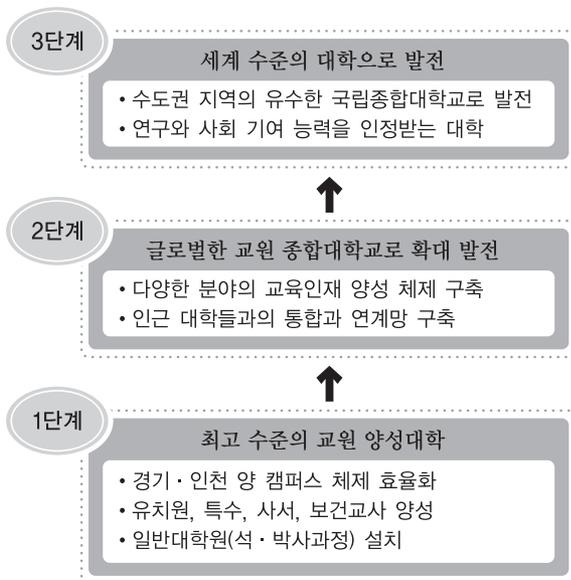
경인교대 부설 평생교육원은 지역 주민, 교사, 교육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내 대학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2007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교사교육센터는 교사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 초등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전문화된 교원교육관련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교육센터에서는 교수·학생 능력개발 프로그램, 양성교육과 현직 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 교대와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프로그램, 초등교육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대학과 일반대학 및 사회와의 연계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교사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의 충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인교대의 비전

### 〈경인교대 비전 2020〉 수립

경인교대는 2005~2006년에 대학의 장기 발전 구상인 〈경인교대 비전 2020〉을 수립하는 것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교원 양성대학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1단계(2006~2010년)는 최고 수준의 교원 양성대학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2단계(2011~2020년)는 글



[경인교대 비전]

로벌한 교원 종합대학교로 확대 발전하고, 3단계(2021년 이후)는 세계 일류 수준의 대학교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평생교육의 확대, 세계화사회의 도래와 국제이해 교육의 요구 증대, 무한경쟁사회의 도래와 수월성 교육의 요구 증대 등 미래사회의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학령 아동 수의 변화, 초등교원 수요의 변화 및 정부의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보다 발전된 미래를 위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경인교대 구성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인교대 구성원들은 이러한 비전이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숙 총장은 “경인교대가 국내 최대·최고의 교육대학교로 성장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언론기관 평가에서 항상 최고의 우수 대학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이러한 규모와 우수성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 세계화와 국제화를 추구하는 대학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교원교육의 중심적 역할은 물론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대학으로 변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인용